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조감도

1982.10.10.창립

위임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7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3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통성으로	다 같 이
찬 송 456장	다 같 이
기 도 1부/ 김승신 전도사 2부/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9:21~24	사 회 자
찬 양 1부/ 영광 7/ 나사렛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2부/ 영광 7/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재록 목사
통성기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설 교 자
찬 송 만민 찬양 78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설 교 자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 예배

주의중·직원 헌신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이수진 목사(교역자회장)

대표기도	이정호 장로(장로회연합회장)
성경봉독	빌립보서 4:13/ 이행엽 목사(호남지방회장)
찬 양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살롬성가대·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헌신자 전체
설 교	민 음/ 이재록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김창민 교육전도사

대표기도	서동묵 목사
성경봉독	창세기 32:25/ 사회자
찬 양	금빛성가대
설 교	1%/ 도유리 교육전도사

금요 철야 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1부 사회/ 이성철 목사
2부 인도/ 신푸름 교육전도사

1부 예배	
대표기도	김동헌 목사(춘천만민교회 담임)
성경봉독	누가복음 10:23~24/ 사회자
찬 양	살롬성가대·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김정은 자매, 만민국약선교단
설 교	영의 공간(3)/ 천우진 전도사
	휴식 시간

2부 찬양과 기도

2-4회 2차 다니엘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금요일은 제외)
 장소/ 본당 및 2성전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2월 8일(월) ~ 28일(주일)
 주제/ 7가지 기도제목

새벽 예배

인도/ 권상내 목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2성전

다음주 예배위원

예 배	사 회	대표기도
주일 1부 대예배	이석규 목사	김지선 목사
주일 2부 대예배	조수열 목사	이중원 목사
주일 저녁 예배	김창민 교육전도사	홍찬에 자매
수요 예배	김태한 목사	신푸름 교육전도사
금요 철야 예배	김요한 목사	길태식 목사
새벽예배 인도	김기석6 전도사	

2월 예배 봉사자

■ 안 내 위 원

주일 1부 /	유금순2	김미옥2	김선양	강건해/	김은아13	최명숙5				
주일 2부 /	정소영	김미정	김현경7	최현숙/	변성미	이수영3	서봉순	정현숙	허신경	최현정/ 김선호
금요철야 /	정옥남	김해자	홍수연	이태순	양근월	정민숙	최선임	김현정29	서홍자	이은경32/ 김화덕
수요예배 /	이수정	김은숙34	김미경7/	이미라	이선영7					
	이경선	이보람	박명희7	이선영7						

■ 헌 금 위 원

주일 1부 /	송지현	홍순영	김영숙	이경림	김화덕	조혜형	최성희	이연옥7	송애미	민홍식	강해정
	고봉숙	박미숙6	전우정	신수정	김미선12	김은아3	김아영	유경선	김소희21	김선양	김현옥13
	윤상희2	이정숙46	(3성전)	전영선	윤선애	황막래	이미숙7	김수영	이용순	김복희3	김형자
	김소영4	양선화	성 희	안현정2	(6성전)	황경순	최명숙5	신임숙	(4성전)	강건해	권원숙
주일 2부 /	김명숙4	김승은	김은희3	정소영	지연애	유은지	이연자	김해자	김구경	송금자	이경순3
및	문형진	김은5	류명순	매정자	김미경5	최영희	방성례	김윤희	최순덕	최현정2	김현옥2
저녁 예배	이정희4	김순화	정은미	서은경4	양미경2	이현정9	김민숙	김미정	김명숙30	박종미	이준남
	박정민6	김유숙2	오은미	이은아9	김수정4	신미향은	박은선	이은옥	곽금숙	위성례	황순애
	김명애	김은단	김귀남	이은선2	김옥남	안명숙	박준주	김미정	이은진3	박선영4	최선임
	이연희5	김해정	윤성자	김혜숙20	(3성전)	안명숙	박순희	심정주	박송진	조순아	이은경32
	환복자	장봉희	김미숙56	황혜영3	(6성전)	서현정	신소란	김소란	박송진	송수자	이은주11
	김정숙39	김순숙24	오유미	박소영		이혜선4	신효경	김소란	(4성전)	김옥자	윤영옥
	김미정7	김순숙	박문영	이희정6			하성희	지인숙	(새교우)	조길례	김명희29
금요철야 /	김명숙	김미영	김선경	김순영	김은정	김정은	김혜진	나영희	민선아	박보희	박주희
	김백은	김정민	송진아	김은진	김은비	김위영	유희숙	윤소현	이승민	박호희	이유리
	이은혜	이한빛	이희진	김도희	정슬이	정영희	박영희	윤주희	이승희	신성우	이정화
	(본당2층)	고연주	고정애	김도희	김재희	김민숙	김현숙	김인숙	김혜민	이희원	한송이
	황승라	채혜린	구분정	권인화	김은숙	김현숙	김현숙	김인숙	김혜민	신지수	이은희39
	김현주	김혜린	나혜영	안예지	안혜영	오은선	오은선	이주영3	이희정4	권아강	김정희
수요예배 /	김경희	이경선	권영옥	엄선희	소은애	한현정	박중순	김소연16	조현경	서금순	박민정2
	김태영	최현숙	박경숙13	장은숙	조미자	이현정9	김정희7	박중순	조현경	오금순	정현선
	이보람	(본당2층)	김순자4				김정희7	신복순	장인숙	장해자	이선영7

■ 봉 사 위 원

식 당 /	박현호	강영숙	이미경2	오현주	최애숙	표순덕	남유자	김연례	백순애	성기원	임성심
	이숙희	최계순	유수진	최화선	박미숙6	최미경	유준재	황보란	유경선	장미숙	전영희
	이광욱	김정순	김영순	곽문유	김정숙	김동숙	김정순	배정희	이종자	허순금	김영귀
	안영순	김소희	최정순	유금순	최현선2	강영숙	김정민	배수애	이정희	박찬미	이영희
	이영순	정미선	박길순	박길순	심선명	강영숙	김정민	배수애	이정희	박찬미	이영희
성 미 /	1부: 김양남	2부: 이혜숙14	박난숙2	여호수아대	박난숙2	만민봉사대	일만대				

제 목 :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

본 문 : 디모데전서 2:4

오늘은 신년 기도제목인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해 증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어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 구원에 힘써 온 제단

이 제단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믿음의 선진들의 사역을 표본으로 삼아 영혼 구원에 힘써 왔습니다. 그중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던 당시의 폭발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 제단을 통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지요. 권세 있는 말씀 곧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더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고 참 진리이시며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욱 거룩하게 살았지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뜻대로 마음에 할례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앓은병이 일어나 뛰고 걷는 역사, 악한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또한 전도하면 우상이나 '사람의 지식'을 신봉하는 이방의 헬라인 중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선민이라는 자존심, 의와 틀로 꼴뿔 뭉친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하고 주를 믿는 이들이 나왔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이 제단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힘입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로 살았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 제단을 통해 복음이 세계 각지에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증거할 때 우상을 섬기던 이들과 복음을 핍박하던 이들도 주를 영접했습니다. 지식인들도

단단한 틀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더 나아가 참 믿음을 갖지 못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성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자 강박한 심령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리라”하신 대로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인도한 열두 번의 해외 연합 대성회는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힘을 확실히 입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요. 이 대성회들을 통해 세계의 주요 거점들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기를 꽂은 후 본 제단은 복음의 땅끝,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3년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후 지금도 영혼 구원의 사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방 종교나 권세자들의 위협도 있었고, 끊임없이 동족 곧 다른 선교사들의 위협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뜻을 창대히 이루셨듯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 배가 풍랑에 파선했음에도 승선한 사람들이 다 살았지요. 이 제단도 갖은 위협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2.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의 주역이 되려면?

1) '신뢰'로서 목자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 당시 바울과 신뢰로 하나 된 동역자들로 인해 복음전파 사역이 창대히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 바울에게 있는 말씀과 능력을 힘입는 정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제단에서도 성경을 믿고, 권능의 목자를 신뢰하는 분들이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를 신뢰하여 하나 된 정도에 따라 권능의 차원이 달라지며 권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성도들이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목자와 신뢰로서 하나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들을 많이 주셨다고 하셨지요. 이는 2010년에 목자가 범죄한 영혼들 대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2013년에는 징계의 칼을 대신 받는 모습을 지켜 본 시간들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지요.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이하여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뢰가 변함없는 온전한 신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끝까지 함께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신뢰를 저버리고 떠난 이들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했기에 어떤 일을 부탁하든지, 어디를 가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섬겼습니다. 아들처럼 함께하면서 수종 들기도 하고, 바울이 명하는 대로 개척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도 했지요. 반면 동역자들 중에는 자기 유익을 좇아 중간에 바울을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딤후 4:10, 1:15). 이처럼 온전한 신뢰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값진 사역에 끝까지 동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함으로써 나머지 1%의 공의를 채워야 한다

목자를 신뢰함으로 목자와 하나 되면 99%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남은 1%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즉 영육 간에 결여와 부족을 열심히 채우고 달란트를 개발해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세공했느냐에 따라 그 빛의 아름다움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되 영육 간에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는 만큼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예를 들어, 손수건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갈 때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쌓고, 육으로도 덕스러운 언행과 교양을 갖추는 만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금식, 부단한 노력을 쌓는 것이 바로 각자의 몫이지요.

혹시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온 영도, 영도 아닌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 제단이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려면 손수건을 들고 뛰실 분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과 일꾼들도 든든히 서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역의 본거지인 본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들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요.

사도 바울도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는 각각의 역할대로 돕는 일꾼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직접 돌아와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어 주며, 진도하려는 곳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예비하기도 하였지요.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제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된 오네시보로 같은 이도 있었지요.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디오처럼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심방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지요. 디도나 더디오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성도들의 답장을 받아 오며,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보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목자와 신령로 하나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며 1%의 공의까지 채운다면 믿음과 달란트대로 영혼 구원에 큰 힘이 되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손수건 집회 시 찬양이나 통역, 안전을 맡는 분들이 달란트를 갖고 닦는 만큼 집회를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본거지인 본 교회를 기동처럼 든든히 받쳐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금식과 기도로 밀어 주는 든든한 본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교회 기도제물이라면 기도의 능력을 받는 만큼 더 불같은 기도로 영혼 구원 사역을 힘껏 도울 수 있고, 영혼을 갈 무리하는 교구장, 지도교사, 지역장, 조장, 구역장, 회장, 기관장이라면 성실하게 기도와 심방, 전도에 힘쓰는 것이 1%의 공의를 채우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레위족이라면 영적 무장과 함께 자기 계발에 힘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육 간에 능력을 갖추는 만큼 영혼 구원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신다면 이것도 1%의 공의를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몫을 다할 때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지요. 따라서 각자가 채워야 할 1%를 성실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행 20:24). 우리 제단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천국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누구, 힘써 성도들을 돌아보고 생명 다해 교회와 목자를 지켜낸 누구,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동참했던 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성령의 사역을 도운 누구” 이렇게 영광의 반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반디앤루니스 (www.bandinlunis.com ☎ 1577-403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알라딘 (www.aladin.co.kr ☎ 1544-2514)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37-7632)

제7과 축복의 비결 (2)

읽을 말씀/ 마태복음 22:37~40

외울 말씀/ 요한일서 5:3

참고 말씀/ 신명기 10:13

교육 내용/ 참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에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최소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눅 6:38).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십은 것의 30배, 60배, 100배도 채워 주십니다(마 13:23).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을 지키라, ~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을 하지 말라, ~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과 죄의 담이 되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 유형의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구약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말하며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고자 할 것입니다.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어주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2.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마음 발을 개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계명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 것이 아니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가르치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킴 받으며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면 이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의무감으로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켜 나가다 보면, 차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라’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 발을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할례하는 것이기에 비록 상급은 되지 않지만, 마음 발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또한 ‘하라, 지키라’하신 말씀은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작업과 같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

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험 환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지킴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3. 기쁨과 감사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행함 자체가 아닌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바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작은 사명이지만 늘 섬김의 자세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마음의 향을 드린다면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억지로 행한다거나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다면 믿음과 소망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심은 후에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면 자신이 심은 것을 파헤치고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마음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방법도 알려 주시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 습니다. 그 결과 예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 습니다. 엘리야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가정, 사업터, 일터 등 모든 분야에서 행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당회장님의 경우만 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치료받은 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썼 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쁨으로 행했지요. 그러자 하나님 편에서도 당회장님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 셧습니다. 언제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필요 할 때 주시는 것을 무수히 체험하셨지요.

이처럼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 답받으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 안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1.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으로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은 마음 밭을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은 ()의 ()을 심고 거두는 작업과 같다.
3. 다음 성구의 성경 장절을 알고 있나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 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 ②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금주 과제

〈신앙인의 기본〉 책자 141~147 페이지까지 읽고 밑줄 쳐오기.

● 알고 넘어 갑시다!

‘십계명’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이다. 이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 가지로 축약한 것”으로 성경의 뼈대라 할 수 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계명 정도는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재록 목사 설교 테이프 안내

- ◆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찬송 외에도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 MP3파일 CD, 설교집, 간증책자, 교재를 안내실 옆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시리즈 설교 및 강해설교 제목설교도 갖추어 있습니다.
- 십자가의 도(24), 믿음의 분량(27), 사랑장(20), 십계명(11), 열재앙(10), 성령의 9가지 열매(9), 팔복(9), 출애굽기 강해(16), 레위기 강해(18), 고린도전서 강해(84), 욕기 강해(198), 잠언 강해(299), 요한계시록 강해(100), 천국(59), 지옥(21), 요한복음 강해(221), 창세기 강해(진행중), 요한일서 강해(진행중) 외 다수

구입 및 문의처 / TEL 02-867-7455

온라인번호/ 우체국 013912-01-000175
(예금주/ 만민교회 서점)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와 예문

설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음력을 사용하는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인 이날은 '묵은해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해의 첫머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2016년 대망의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지난 한 해도 지키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1.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458장 ----- 다 같이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 -----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5:18~19 ----- 인도자

설교 ----- 화 목 ----- 설교자

2. 설교 예문

가정에 싸움과 다툼이 없고 사랑이 넘친다면 항상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니 안 보면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어지지요. 행복한 가정의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깜짝 놀라 “왜 우느냐?”고 물었지요. 이유인즉슨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 밥이 탔다.”며 자기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위로에 아내의 감격해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 부엌을 지나가시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장작을 굵게 패지 못하고, 잘게 패서 화력이 너무 세 밥이 탔다.”며 자기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내가 늙어밥 냄새를 못 맡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며느리를 감싸 주었지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상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남의 탓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지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화목을 중요시하여 가훈으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써 놓은 것도 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육선 곧 고기로 만든 음식이 가득한 부유한 집에서 살며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서 살더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늘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 큰 불로 번지면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람이 다치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화근(禍根)이 되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손해를 입히지요.

야고보서 3장 5~6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깨고 싸움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툭툭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늘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말이 선하나 악하나에 따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의 큰 해를 입기도 하고,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반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말 한마디도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하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험담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격려하는 말, 자존감을 높여 주는 힘이 되는 말을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늘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 주는 선한 말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며 섬겨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남편이 자기에게 맞춰 주길 바라고 자신이 남편에게 한 만큼 받지 못한다면 서운해하고 빠치는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여 아내에게 저 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이란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은 온전히 녹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또한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 내 것, 자존심, 내 고집, 나 보기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삼가 입술의 말을 주의하여 오직 덕을 세우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섬긴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나기도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 악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형통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안 될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잘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4-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 되면 새해의 풍요로운 수확과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막연히 신에게 빌었습니다. 또 음식을 차려 놓고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냈지요. 마치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흠향하는 것처럼 정성 다해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다하여 영혼이 떠나면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기도를 하였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참 신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어떤 사고나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새해에는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십시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전체심방목사: 이중원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정리라 (부:이성숙)	구로구구 가리봉동194-139번지)
2교구장	정리라 (부: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 89-133번지)
3교구장	김은혜 (부:박갑숙)	구로구구 가리봉2동 3구3동)
4교구장	김은혜 (부:주지영)	구로구(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고척동 고척2동)
5교구장	장정미 (부:정동임)	구로구(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천왕동 황동 은수동 궁동)
6교구장	장정미 (부:권영남)	양천구
7교구장	고경아 (부:황미경)	영등포구(신길동 여의도동)
8교구장	고경아 (부:송인희)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문래동 안화동)
9교구장	류순주 (부:서덕분)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10교구장	이달천 (부:김영석)	동작구(상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11교구장	강경희 (부:송재성)	동작구(대방동 노랑진1동 노랑진2동 본동)
12교구장	이성철 (부:서동목)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이성철 (부:나진홍)	금천구(가산동)
14교구장	천우진 (부:이석규)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5교구장	천우진 (부:문신현)	광명시(하안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6교구장	한지민 (부:원완희)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17교구장	임학영 (부:박광현)	관악구(신림동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8교구장	임학영 (부:차전환)	관악구(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19교구장	조범석 (부:조은영)	서초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20교구장	조범석 (부:노영진)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21교구장	구희선 (부:김복심)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주현권

22교구장	김수정 (부:정진영)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3교구장	김수정 (부:박김미)	고양시 파주시
24교구장	임환택 (부:차경숙)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5교구장	김승신 (부:김학배)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26교구장	김승신 (부:최영자)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27교구장	이지영10 (부:경인모)	인천시(남동구 남구 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군)
28교구장	도유리 (부:이영철)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29교구장	한순영 (부:조미정)	평택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30교구장	김진아 (부:강순자)	안산시 시흥시
31교구장	김현주28 (부:김영삼)	부천시
32교구장	신푸름 (부:안성현)	인천시(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중국교구장	황금란 (부:신두천, 조영숙)	중국1교구(중국동포)
		중국2교구(중국인)
해외교구장	이지영30 (부:오인숙, 한금주)	해외교구(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남

예배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 소/ 2성전, 1유아실

문의전화/ 02-866-3206, 02-818-7411~3

만민선교원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원 훈/ 사랑

교육특색/ 연령에 따른 능력별 영재 교육

모집대상/ 취학준비, 영재교육반(6,7세)

유아교육반(4,5세)

홈페이지/ www.manminkids.org

문의전화/ 02-818-7421, 02-864-3398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를 인도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교우를 새교우환영실(본당 건너편)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5주 교육프로그램이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에서 있습니다.

• 당회장님 동정

- 오늘 저녁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에 설교하십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를 영어 전자책 (e-book)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당회장님의 신앙칼럼이 「크리스찬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등에 매주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교회 소식

- 2월 첫째주 만민뉴스 724호와 영어 신문 477호, 중국어 간체 신문 361호를 발행하였고, 필리핀 따갈로그어(149호), 필리핀 비사야어(62호), 히브리어(45호), 에스토니아어(45호), 네덜란드어(37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오늘 저녁예배는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금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만민뉴스, 설교테이프, 책자 등으로 일가친척, 이웃 등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설날 감사예배 순서 및 예문이 후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후보 15페이지 참조)
- 다음 주일 저녁예배는 「2016년도 졸업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민기도원/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2월 29일(월)부터 4월 10일(주일)까지 이복남 원장님의 인도로 본당과 각 성전에서 있습니다. ※ 주제: 1%의 공의를 채우자
- 만민서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 부활절(3월 27일)을 맞이하여 학습·세례문답을 실시합니다.
문답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책자는 교회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월 14일(주일), 2월 21일(주일), 2월 28일(주일), 3월 6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학습문답(2유아실), 세례문답(3성전 단 앞쪽)
- 기획실/ 금주 후보 광고 접수는 설 연휴 관계로 오늘 저녁 6시까지 마감합니다.

- 기획실(전산팀)/ 만민뉴스레터(한국어) 제9호가 제작되었습니다.
전도와 신앙 성장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http://m.manmin.org>)
- GCN 방송/ 주일 2부 대예배와 저녁예배 시 베트남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GCN 방송 홈페이지 www.gcntv.org 교회 홈페이지 www.manmin.org)
- 우림북/ 2월 추천도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만민서점과 우림북에서 2월 한달간 10% 할인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 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주요 전자책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교우 소식

- 새교우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
- * 금주 강사: 이지영 목사 (제목: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
 - * 새교우를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교회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nc.manmin.org

• 지교회 소식

- 대구만민교회(담임 주총봉 목사)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2월 14일(주일) 오후 3시
- * 설교: 이희선 목사, 특송: 권능팀 (교회 차량출발: 오전 7시)
 - * 성령충만기도회/ 2월 13일(토) 오후 7시
 - * 지교회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차량 배차 관계로
기획실로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818-7234

• 교구 소식

- 중국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2월 11일(목) 오후 9시 3유아실 (설교: 황금란 전도사)
- * 금주 성전 청소: 29교구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분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 장로회
2장로회 월례회/ 오늘 저녁 예배 후 1유아실

가나안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벽산 디지털밸리 3차 오렌지스폰 식당
화요찬양예배/ 금주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청년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1,2청년)
코오롱 빌라트 2차 식당 (3,4,5청년)

화요찬양예배/ 금주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빛과소금선교회

수요찬양예배/ 금주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학생주일학교

공과 모임/ 1부 대예배 후 중1-임마누엘성가대 연습실, 중2·중3-하이엔드 2차 식당,

고1·고2-하이엔드 1차 식당, 고3-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이복님 원장님 초청 특별 토요찬양예배/ 2월 13일(토) 오후 3시 2성전

※ 준비찬양: 오후 2시 30분

※ 학부모님들도 함께 초청합니다.

아동주일학교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김현진 전도사, 찬양인도: 김수경 집사

• 성도 소식

차인덕 집사(2-2남, 18교구)/ 「소공화원」 개업(축하화환, 근조화환, 꽃바구니, 꽃다발, 난 등)

봉천동 현대시장 내 ☎ 1661-5111, 010-2271-2944

정은지 자매(고2, 5교구 정의택·오유미 집사 자녀)/

머니투데이방송주최 「제 2회 경제스피치대회」 대상 수상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남구역장연합회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반)

GCN, 우리 영향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7 일

- 00: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8
- 05:00 - '예배 1' 신동초 목사
- 08:00 - '공부 잘하는 비결 9' 이재록 목사
- 19:10 - '우리 삶의 등불 60' 이재록 목사

2/8 월

- 00:30 - 'MIS 강의 53' 정구영 목사
- 05:00 - '열 재앙 33' 정구영 목사
- 10:20 - 2015 성탄전야행사
- 14:00 - '천국 11'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의 분량 9' 이재록 목사
- 18:00 - 흥겨운 소리 2

2/9 화

- 00:30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5' 이수진 목사
- 05:00 - '영의 공간 천우진 전도사
- 06:3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 해보기> 8
- 09:20 - '만민의 역사 1' 이재록 목사
- 10:20 - 창립 33주년 전야행사
- 12:05 - GCN 금요찬양 스페셜 74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5' 이재록 목사
- 19:40 - 회상 15

2/10 수

- 00:30 - 창조와 과학 21
- 05:00 - '위로부터 난 지혜 3' 김수정 목사
- 07:05 - '사랑장 9' 이재록 목사
- 08: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 이재록 목사
- 10:20 - 창립 33주년 축하공연
- 13:0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의 분량 11' 이재록 목사
- 18:00 - 내 마음의 찬양 26

2/11 목

- 00: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8
- 05:00 - '믿음의 분량 2' 신동초 목사
- 07:05 - '사랑장 10' 이재록 목사
- 10:50 - '옛날 옛적에 7
- 11:20 - '변함없는 사랑' 천우진 전도사
- 15:30 - '믿음의 분량 12'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7' 이재록 목사
- 18:00 - English 6

2/12 금

- 00:30 - 회상2 (10)
- 05:00 - '선물' 김창민 교육전도사
- 10:5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 해보기> 7
- 15:30 - '믿음의 분량 13' 이재록 목사
- 20:00 - 만민의 간증 86
- 20:30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2/13 토

- 14:00 - '영의 세계 34' 이희선 목사
- 15:30 - 모두 드려요 43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9' 이재록 목사
- 19:50 - 즐거운 요리 7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etv.org)

※ 에브리온TV 507번 및 KT o!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20분
- 3분 설교_30분(매주 새로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기도_40분(한국어), 41분(영어), 42분(불어), 43분(중국어)
- 찬양_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70분
- 환자기도는 02-1570 (교환번호 3200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러시아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 오후 3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일예배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 매일 오후 9시
- 기타 녹화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e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etv.org

- Feb. 7 (Sun.)

(Luke 18:8) "I tell you that 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 Feb. 8 (Mon.)

(Mark 3:35)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he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 Feb. 9 (Tue.)

(Matthew 24:36)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nor the Son, but the Father alone."

- Feb. 10 (Wed.)

(Matthew 26:41) "Keep watching and praying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 Feb. 11 (Thu.)

(Matthew 19:24) "Again I say to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Feb. 12 (Fri.)

(Matthew 19:30)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 Feb. 13 (Sat.)

(Matthew 18:10) "See that you do not despise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say to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continually see the face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금주의 성경구절

2월 7일(주일)

(눅 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2월 8일(월)

(막 3: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2월 9일(화)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월 10일(수)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월 11일(목)

(마 19: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월 12일(금)

(마 19: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월 13일(토)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하)

지옥

영혼육(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상·하)/ 욕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나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물 기본

지혜/ 자기계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젓과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약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_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_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3_예배편

사함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_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5_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6_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7_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8_열매양편

가이한 일

희한한 등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상·하)/

사랑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웃을 내로 버리라/ ... 2

깊은 대로 가서 그들을 내리라/ ... 3

옛새 동인의 만나(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간증집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간증집 3

하나님은...!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2/월/추/천/도/서

“믿음의 분량”

나의 믿음은 몇 단계일까?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의 지침서!

각 사람의 믿음이 왜 다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 어떻게 알 수 있는?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최고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에서 주어지는 여러 궁금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EVENT THE MEASURE OF FAITH THE MEASURE

2016. 2. 1 (월) - 2. 29 (월)
만민서점 책자 10% 할인

단, 만민서점 설 특판행사 기간 중에는
설 특판 할인을 20% 기준 적용. 끝.

핸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아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피루스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품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